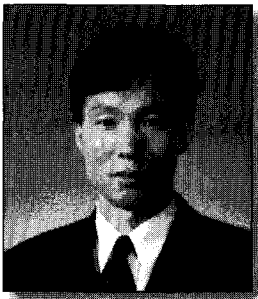


성공적 연구 결과 도출하는 한해로...

문상호/건국대학교 축산학전공 교수



문상호
건국대학교 축산학전공 교수

말 그대로 우리 양육업계에는 다 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뭔가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하고 또한 마음을 다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듯하다.

우리 양육업계의 지난 한해는 너무나 되돌아보기 싫은 1년이었으며 이런 암울한 시기가 다시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외국산 절편녹용 수입, 만성소모성질병에 의한 사슴의 대량 살처분, 원인 모를 질병에 따른 대량 폐사, 국내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악재로 인한 녹용소비의 위축, 이에 따른 사슴값의 폭락 등 우리에게서는 악몽과도 같은 일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를 침

울하게 했고 가슴을 답답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특히 우리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것이 못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의 울분도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보았으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본인은 양육관련 연구에 종사해 오면서 지금처럼 어려웠던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작금의 상황이 어렵긴 하나 지금처럼 양육농가 및 관련자들이 노력하는 모습 또한 처음 보는 듯 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위기에 처할수록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던 것처럼 양육업계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양육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고 지금까지 표출하지 못한 그 힘을 이런 기회를 통해 분출함으로

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고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가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결집되면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역시 주어진 책무, 즉 양록관련 연구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양록업계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다져온 연구기반을 중심으로 새해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신년벽두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국산 녹용의 차별화 전략의 수립을 위해 양록농가의 전폭적인 협조 속에 사료조건에 따른 녹용성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와 녹용의 과학적 품질규정을 위한 연구를 올해는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연구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될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올해는 기대한 만큼의 연구성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록농가의 협조도 물론 필요할 것이다. 국내 양록업 발전을 위해 큰 차원에서 개인적인 조건의 희생은 전체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의지를 갖고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가장 큰 녹용소비시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내에 한정하여 우리의 영달을 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녹용에 대한 인식을 세계로 넓혀 가면 외국에서도 우리의 좁은 시장만을 겨냥한 양록업은 변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가까운 중국의 경우 그 시장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외국의 많은 시장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 우리끼리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고 시야를 넓혀 외부 시장을 겨냥한 전향적인 자세의 견지를 통해 우리의 양록업은 더 이상 외국에 뒤지지 않는 선진 양록업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새해에는 변화하는 국내 양록업이 되길 기대하며 주변에 양록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이 우리 쪽에 합류하여 좋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록업**